

호남예술제 심사평

안무 치중할 경우 습관화 우려

성악(초등) 강숙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은 좋은 노래보다는 안무에 치중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를 요란하게 하면 나중에 좋지 않은 습관으로 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음정, 박자, 리듬이 조화롭게 갖춰진 노래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대회준비에 너무 열심을 내다보니 무리하게 연습을 해서 대회 당일에 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신경써서 지도해야 할 것 같다. 높은 수준의 가곡이나 어려운 창작동요도 좋지만 쉬운 곡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남대 교수>

참가자들 대부분 수준 높아

성악(중·고) 윤현주



중등부는 아직 변성기를 거치지 않은 학생들과 변성기를 이미 지난 학생들이 함께 경연에 참가함으로써, 심사기준 설정부터 쉽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의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고등부 역시 비교적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것은 대부분 학생들의 적절한 곡 선택이었다. 무거운 오페라 아리아나 대곡을 억지로 부르므로써 성대에 무리를 주고, 심할 경우 성악가로서의 꿈을 일찍 접어야 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하는데, 참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곡을 선택하여 불렀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참가자 대부분이 가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노래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대 교수>

어린이들 음악 수준 많이 향상

피아노(초등) 김신영



피아노 음악은 어떤 작품을 연주하든지 어린이들이 작곡자와 악곡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장차 음악적인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번 예술제에서는 다른 해에 비해 작품의 선택이 다양해 어린이들이 악곡을 연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악곡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악상뿐만 아니라 일정한 맥과 박을 유지하면서 리듬의 감각을 살리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학년에서 최고상을 받은 어린이는 테크닉뿐 아니라 작품에 대한 표현 능력이 뛰어났으며, 고학년 어린이는 긴 스케일 패시지나 특징적인 리듬 등을 훌륭히 소화해 잘 표현하였다. <목포대 교수>

중등부 지정곡 연주 능력 탁월

피아노(중·고) 신수경



중등부의 경우 기교적인 면에서만 볼 때 고등부와 견주어 실력이 뒤지지 않게 느껴졌으며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은 탁월한 연주 능력이 돋보였다. 반면 고등부는 역대 참가자들 수준 중 제일 뒤떨어지지 않았으나 싶었다.

중학생들은 아직 신체적으로 발육이 덜된 탓에 소리의 강도가 약할 수 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은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절을 세워서 치는 주법을 몸에 익히도록 훈련받았으면 한다. 또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소리의 울림을 잘 듣고 음의 좌우관계를 생각하며 연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남대 교수>

창작무용 음악적 호흡 돋보여

한국무용 박은영



중·고등부 참가자 대부분이 선보인 살풀이는 기본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순서 위주의 따라하기에 불과한 작품이 많아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창작무용 부문은 감정표현과 잔결을 사용한 분위기가 위주의 작품이 대부분으로, 몸이 아름답고 음악적 호흡에 적합한 구성들이 돋보였으며, 무대표현이 적극적이고 소품사용이 많았다.

잔발과 돌기, 선위주의 창작 작품이 우아하여 감정표현은 좋았으나, 앉고 뛰고 어르는 생동감이 부족하여, 호흡과 테크닉의 다양화가 필요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고등부 솔로 출연자 기본기 탄탄

현대무용 김화숙



초등학생이 과연 팝송의 내용을 알고 춤을 추는 것일까? 이번에는 유난히 가사가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춤과 노래가사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자는 적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고등부 솔로 대부분의 출연자가 탄탄한 기본기와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었으며, 초등부 군무의 경우에는 꿈나무들을 기대하게 했다.

무용에서 주제표현은 필수적이다. 주제에 적합한 동작과 음악, 그리고 의상의 선택은 작품의 질을 좌우한다. 내년에는 연령과 수준에 맞는 주제로 개성 있는 춤을 추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원광대 교수>

고등부 군무 콩쿠르 백미

발레 김화례



초등부는 무조건 토 워크(toe work)훈련과 창작을 많이 자체해야 할 것 같다. 기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 토 워크를, 또 클래식 작품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중등부도 기본을 충실히 마친 후 클래식을 배웠으면 한다. 충분한 기본기를 다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식 작품을 연습하면 학생들에게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악의 경우 소음이 너무 심했고 편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교사의 무성인함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등부는 기량이 훌륭했으며 특히 군무는 이번 콩쿠르의 백미였다고 생각한다. <경희대 교수>

음악하는 사람은 바른 자세 필수

국악 김정자



음악을 하는 사람은 바른 자세가 필수다. 경연에서 대금을 연주하는 어린이 가운데 상체를 곧게 세우지 않고 등이 굽은 자세로 연주하는 학생도 있었다.

가야금에서도 고개를 지나치게 숙이고 연주하는 학생이 있었다. 자세가 바르지 않을 경우 호흡이 짧아지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

관소리나 가곡, 민요 등 부문에는 각기 우리나라 창법이 있다. 민요합창에서 목구멍에서 '발발'하는 서양 발성이 간혹 섞여 나와서 아쉬웠다. <서울대 교수>

곡목 선정 등 수준 크게 향상

합창 임영만



많은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앙상블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호남 예술제에 참가한 대부분의 합창단은 예년에 비해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곡목 선정에 있어서 성인합창단도 소화해내기 어려운 현대음악을 무반주로 연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교음악을 연주하는 합창단도 많았는데, 라틴어 발음과 가사에 알맞은 표정관리가 적절치 못한 합창단도 있었다.

아쉬운 것은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고자하는 열정에 비해 비뚤(박자정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지휘자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호남신학대 교수>

저학년 참가자들 경연 돋보여

관악 황성규



관악부문에서는 저학년 참가자들의 열띤 경연이 돋보였다. 반면에 좋은 음악성을 가지고 있지만 곡의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연습방법이 좋지 않아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 화려한 곡을 선택하여 부자연스러운 연주를 하는 것보다 충실히 소화시킬 수 있는 곡을 선택하여 잘 연주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콩쿠르에 입상하는 것은 성취감을 높여주지만, 입상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악적 미래가 닫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남대 교수>

송원초 삼도사물놀이 판굿 잘 소화

국악합주 김동현



송원초의 삼도사물놀이 판굿은 초등학생으로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가락과 진행 그리고 개인놀이도 능숙하게 소화하면서 멋진 연회를 보여주었다. 원래의 모습과 기능에 충실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면 더 좋을 듯 싶다.

광양제철남초의 '신모듬'은 사물을 비롯하여 피리, 대금, 소금 등 많은 악기가 조화를 이룬 연주로 악기를 일일이 가르친 지도자의 정성이 돋보였다. 진도실업고의 경우 귀한 시간을 쪼개어 꾸준히 연습하여 멋진 연주를 보여준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부피가 큰 악기를 가지고 많은 인원이 움직이려면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참가팀이 적은 게 아쉽다. 주최측의 지원을 기대해 본다. <광주교대 교수>

광양제철초 앙상블 훌륭

양악합주 이형석



예년에 비해 참가한 팀의 숫자가 매우 저조했다. 합주 수준은 편차가 있었으나 모든 팀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광양제철 초는 초등학교 팀으로서 다른 학교의 구성원에 비해 단원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만큼 그에 걸맞게 소리도 힘있고 우렁차으며 앙상블도 훌륭하였다. 중흥초는 소규모였지만 짜임새가 좋았고 지휘자의 지도가 돋보였다.

광주 송원초는 단원 모두 악보를 외운 상태에서 암보연주를 한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 현악기에서 활의 통일성이 보기 좋았으며 비올라, 호른, 튜바 같은 파트만 보강된다면 훌륭한 관현악 합주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전남대 교수>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된 느낌

현악 나덕성



음악, 특히 현악부분은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된 느낌을 받았다. 통신, 교통 등 문화의 교류가 서울과 지방의 구분을 없게 만들었다.

고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 부분은 특출한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띈다. 앞으로 더욱 더 집중적으로 정교한 테크닉과 음악적 해석을 쌓는다면 큰 인물이 배출되리라 예상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경연자 모두 수준 미달자는 한명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중등부 최고상을 수상한 학생은 기교적인 면 음악적인 면에서 탁월한 연주 능력이 돋보였다. <중앙대 교수>

독창성 뛰어난 작품 많아

미술 백기상



작품마다 느껴지는 독창성을 통해 학생다운 관찰력과 감각 등 예술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작품 수는 총 2천 500여점에 달했으며 작품은 초등학생들의 상상화, 중등학생들의 사생능력을 공정하고도 신중하게 평가했다.

심사 관점은 학생다운 관찰력과 창의성, 독창성, 회화성, 작품성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학생다운 표현력 등을 살렸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천진난만하고 유머러스한 터치가 흥미로웠으며 중등학생들의 실험적인 작품 접근이 돋보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산문 자신 생각 진솔하게 표현해야

작문 전원범



예년과 달리 예상을 거쳐 엄격한 감독하에 본대회를 갖게 되었다.

산문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통일성 있게 써야 좋은 글이다. 또 시는 어떤 대상에 대한 자기만의 독특한 느낌을 잘 나타내야 좋은 글이다. 그런데도 산문에서는 글감을 통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엮어가는 힘이 부족했고 시에서는 상식적인 발상에 그친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너무 감상적으로 접근하거나 교훈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들은 주의해야 할 일이라 느껴졌다. <광주교대 교수>

논술준비 다른학생의 글 많이 읽어야

논술 이봉형



중학생부문에 최우수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아니다. 잘 정리된 글쓰기가 가능한 학생들은 중, 고등학생들이지만 자유로운 생각을 펼치는 모습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더 여유롭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학생들의 글을 많이 읽어 보아야 한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생각하는 수준을 따라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상 수상자는 출산율 저하와 관련한 논제를 가지고 굳건하게 논리적인 글을 펼쳤다. <광양고등학교 교수>

7월 9일 공무원 **남경철직** **공인중개사**

행정직, 세무직, 농업직,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복지직, 기술직

필면경험 101명, 응원순위

7월 13일 **전남고시학원**

전남고시학원, 광주광역시, 1082-222-5105

실내정원

정원, 조경, 인테리어

511-0280

미용그룹 세종에서 유능한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10821223-1088

전립선 J2V

www.j2v.net

1588-3871